

[ 기획 ]

光州日報 연중 캠페인
함께 할수록 커지는 문화 나눔
Hand in Hand

<제2부> 문화 향기 현장속으로
(5) 대전 '마을 어린이도서관협의회' 박미란 대표

■ '마을 어린이도서관협의회' 박미란 대표

'달팽이' '또바기'... 행복 가득한 '꼬마 도서관'



"오늘 저희 너무나 행복해요. 앞으로 이 공간을 잘 지켜 나갈게요."

지난 4월 대전시 서구 월평동 한 건물 상가 2층에 새로 문을 연 '꼬마 어린이도서관'에서 만난 주부 최효은(29)씨는 상기된 표정이었다. '꼬마 지킴이'들이 된 20여명의 엄마들은 이날 개관식을 찾은 많은 이들에게 도서관 이름처럼 이곳을 '아이들의 꿈이 자라나는 곳'으로 만들어나겠다고 다짐했다.

최 씨는 "1년 동안 도서관 개관을 준비하며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우리 아이들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이 완성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같은날 몇시간 후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의 주택가 건물 지하에 위치한 '모퉁이 어린이도서관'의 자에 앉거나, 바닥에 누워 편안한 자세로 책을 보던 10여명의 아이들이 오후 5시가 되자 급세 한자리로 모였다. 매주 화·목요일 두 차례 진행되는 '그림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자원봉사 선생님이나 '하지만 하지만 할머니' 등 책을 읽어주자 아이들은 '부우웅' 보리 방구 흉내를 내며 웃음을 터트렸다.

동생 시훈(4)이와 함께 자주 도서관을 찾는 이승현(동대전초 3)양은 "모퉁이에 올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말했다.

대전은 지역 곳곳에 주민들의 손으로 일군 어린이도서관이 촘촘히 깔려 있다. 지난 4월에만 '꿈터'를 포함, '달팽이', '작은나무', '마루' 4곳이 새롭게 개관, 현재 대전에는 '작장', '알뜰', '모퉁이', '또바기', '강아지방' 등 모두 10개의 어린이도서관이 운영중이다. 또 5월과 6월 사이 3개가 더 문을 열 예정이며 지난해에는 '대전 마을 어린이도서관협의회'가 창립회도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

어린이도서관은 대부분 80~150㎡ 공간에 3천여~1만여권의 장서를 보유한 '꼬마 도서관'이지만 그 역할은 공공도서관 못지 않다. 대부분 주민들의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어린이 도서관은 이제 단순한 아이들이 책을 읽고 노는 공간을 넘어서 지역의 문화 공간이자, 마을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대전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모퉁이 어린이도서관'은 지역민들의 문화 사랑방 역할도 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열린 '그림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 모습.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대전공동모금회 테마사업 '작은 도서관' 지원
지역 문화 공간...엄마 자원봉사자들 역할 톡톡

대전은 어린이도서관 개관 붐은 도서관의 필요성을 절감한 엄마들의 노력과 지자체·지역 단체의 지원이 맞물려 가능했다.

특히 '모퉁이 도서관' 등 '선발 주자'들의 '작은 도서관' 성과들은 올바른 교육과 함께 하는 공동체 사회를 지향하는 엄마들의 참여를 이끄는 '씨앗' 역할을 했다. 동네 마다 '동화 읽는 엄마 모임' 등 젊은 엄마들이 주축이 돼 작은 소모임을 꾸렸고,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반까지 머리를 맞대고 자신들만의 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논의들을 끝없이 진행했다.

여기에 힘을 보탠 건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다. 중앙 기관이나 정부 차원에서 '작은 도서관' 공모 사업을 진행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전국적인 경쟁'을 거쳐야 했던 터라 지역에서 당첨되기는 매우 어려웠던 게 사실. 공동모금회가 테마 사업으로

'작은도서관' 공모를 진행하면서 3천만원씩을 지원, '알뜰' 등 5개 도서관이 문을 열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대전시가 "대전에 100개의 작은 도서관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던 현 시장의 뜻에 따라 공모 사업을 시행, 5개의 어린이도서관 개관을 지원한다.

'작장 어린이 도서관'처럼 지역 동사무소가 비어 있는 공간을 내어주거나, 개인 회원들이 직접 공간을 마련하는 등 어린이도서관의 설립 방식들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월 1만~2만원을 내는 '개미 후원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힘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공통점이다. 회원들은 심시일반 회비를 모아 운영비를 마련하고 도서 정리와 책 수납, 대출 등은 모두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진행한다.

또 하나, 어린이도서관은 책을 대출해 주는 데만 머물지 않고 어린이 뿐 아니라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을 운영중이다. 지난해 가을에는 '마을 어린이도서관축제'도 열었다.

대전 지역 뿐 아니라 전국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모퉁이 어린이 도서관'은 올해 개관 8년째다.

도서관은 운영위원들과 봉사자들의 힘으로 굴러간다. 월 1만원을 내는 후원자들이 조금씩 정성을 보태고, 대출 반납과 도서 정리를 맡는 자원활동가와 도서관이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 강사 20명 등 모두 50명이 일꾼이다. 현재 소장 도서는 1만여권 정도. 매달 도서관 신간구입팀이 회의를 거쳐 한달에 40~50권씩 구입한다.

'길모퉁이'는 초등학교 4학년생들에게 심진분류 등 책 분류법을 가르치는 '도서관 이용 교육 프로그램'과 학부모 명에 사서 교육 등 독특한 프로그램도 운영중이다.

/대전=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어린이 도서 전문 사서 상근자 지원책 절실"

"도서관 문을 열기 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어떤 도서관'으로 만들 것인지 서로 상의하고, 사람들하고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시간은 길수록 좋습니다."

대전 마을 어린이도서관협의회(이하 협의회) 대표이자 모퉁이 어린이도서관장인 박미란(45)씨는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는 아무래도 재정적인 게 가장 큰 문제다. 무엇보다 어린이 도서 전문 사서와 상근자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의 경우 도서관 개관에 중점을 두다보니, 현재 운영중인 도서관에 대한 관심은 뜸한 편이다. 그래서 지난해 정책기획, 사서, 어린이분과 등 세계의 위원회로 구성된 협의회를 만들었고 지난해부터 시청 담당자와 정기적으로 도서관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지역 도서관은 어린이를 뿐 아니라 어른들을 성장시키는 공간이기도 해요. '노력봉사'를 하고나면 생각하면 자원봉사가 오래 갈 수 없어요. 도서관을 찾는 이들은 대부분 이런 활동을 통해 자신들이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피부로 느껴요."

박 대표는 "특히 지역의 작은 도서관은 마을 주민들이 교육과 문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자주 대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화 나눔 현장, 알려주세요

문화는 나눔수록 더욱 커집니다. 소외계층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는 객석 기부, 예술인들의 공연 기부, 기업체의 예술단체 지원 등 아름다운 문화나눔 현장을 찾아갑니다.

작은 목소리도 큰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 주변의 향기로 문화 나눔 소식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광주일보사(062-220-0661, mekim@kwangju.co.kr)나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062-381-2234)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후원 Land Life Love 한국토지공사 한국전력공사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료를 내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첨단월계공인중개사
★ 금매매 ★
● 첨단 인근 비아동 일반주거지역 1000평 다세대주택, 불투출고, 복자빌바사실
● 첨단 공업지역내 공장매매 공장건물3층 910평, 대지 800평 신축준공2007년11월

금보부동산컨설팅
▶ 토지매매
- 원산구 청룡동 산34지 1,941㎡ 대지가 2억 4,000만원 대지가 5,000만원
- 원산구 원산동 산1지 1,356㎡ 대지가 1억 2,000만원 대지가 5,000만원

법원경매 전문
지지경매컨설팅(주)
(법원 경매입찰장 역)
☎ 062-226-0047 ~ 8
명확한 권리분석, 명쾌한 명도, 명확한 수익성 분석에 의한 재테크 전문상담

법원경매 전문회사
- 불 앞서는 사람들 - (주)육선코리아
(법원경매입찰장 역) 상담전화 : (062) 222-8446
성공적 파트너 / (주)육선코리아 무료상담 권리분석, 명도 유치권내역서 및 정정여부, 내찰가예상분석 예고등기, 선순위 기입하기, 가처분, 가압류처분 등 차별화된 상담을 기다립니다. (평으로환산시 ㎡ x 0.3025)